

해설

Notional Exchange Centre

1. 국제간의 출판물교환센터는 어떻게 설치 되었는가?

전후(戰後)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날로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자 자국(自國)의 과학을 진흥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이에 적극 간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각국에는 국립과학센터가 경쟁적으로 설치 되었다.

유네스코 간행 1953년판 "유네스코 회원국과학연구위원회 개설"에 나타나 있는 과학센터수를 조사하여 보면 1953년 현재 수자로 28개국 중에 35개의 과학센터가 있음을 알수있다. 전후 각국 정부가 국가 시책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후원하게 되자 과학연구에 전심전력하게 되어 그 결과로 수 많은 과학서적의 출간을 보게 되었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그들 상호간의 긴밀한 연관(聯關)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연구 분야의 경험을 서로 교환할것을 열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희망은 과학자 자신들 만이 그치지 않고 당해 정부가 더 그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이와같이 날로 늘어가는 전세계의 희망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유네스코는 각국에 교환센터를 설치하도록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교환센터의 가능은 처음에는 단순히 과학자들의 상호간의 경험을(연구 논문등)을 나누는 정도에 있었으나 우연히도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과학서적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 지식의 전세계 교환에 이바지 하고 있고 또 이의 수송이나 통관 등의 장애를 제거하는 기관이 되었다. 1951년에 유네스코 제6차 총회에서는 출판물의 국제교환, 국제대여, 및 분배사무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각국에 설치되어 있는 교환센터의 조직 및 사업을 개선 발전시킬것을 전세계 회원국가에 권의 한적이 있다.

현하 유네스코에서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시책을 전개하여

나가기 위하여 유네스코 회원 국가로서 교환센터가 없는 국가에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하도록 국제협정서를 작성중에 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베루기의 수도 부랴벨에서 이의 최종안을 작성하였으며 이것이 다음 유네스코 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의 엄연한 / 회원국가로서 정부 수립후 10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볼수 있는 교환센터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는것은 문화면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점을 통감한 본 협회에서는 하루속히 이를 설치 하기위하여 백방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차 유네스코 본부에서 자료재공은 물론 설치사실을 돕고자 자금 500 불을 원조하여 주겠다는 통지가 지난 6월 25일자로 본회에 도착되었다. 이와같이 유네스코가 자금 원조까지 베풀면서 교환센터를 설치 하도록 고무하여 주는 차제에 수혜자인 우리로서 성심 성의껏 이의 설치에 정부는 물론 전국도서관, 기타 관계 단체가 협력하여 우리의 문화를 해외에 선전하고 외국 의것을 받아 드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출판물의 수효는 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서적이 출간되고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유한 국가에서도 그렇듯 하물며 개천우리나라로서 무더한 수의 자료를 전부 구입하여서조차 못할 일임으로 일편 필요자료를 구입하며 일편 국제 교환 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서로 교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출판물국제교환의 정의와 그 방법

1. 정의 (定義)

출판물 국제 교환이란 교환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협정 (International Convention) 혹은 협약 (Agreements) 에 의하여 자국에서 출판된 인쇄물을 서로 교환하고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협정이나 협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의 원칙으로서의 국제 의식서 (儀式書) 가 아니다.

이에는 일반적으로 두 당사자의 약정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약정은 두 당사자가 서로 서신 연락만으로도 이를 구체화할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쇄물이란 인쇄된 잡지, 정간서(發刊書), 도서, 팜플렛은 물론 라자, 등사, 축사(縮寫) 필름,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지 출판된 잡지, 정간서, 도서 및 팜플렛도 다 포함한다. 그러나 나아가서 계획서, 지도, 등판화(銅版圖) 사진등도 이에 포함한다. 단 도록상 또는 정치적 이유때문에 출판되지 않은 인쇄물은 원칙상 국제교환의 목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정부나 지방관청에서 간행한 소위 관공서 간행물(官公署刊行物, *official publications*) (一名 政府刊行物 이라고도 한다) 이다.

2. 방법

교환 방법으로는 직접교환과 간접교환의 두 가지가 있다.

1. 직접 교환

직접 교환이란 교환교자 희망하는 두 당사자가 서신에 의하여 직접 자료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교환센터와 같은 중간 매개 물을 거치지 않고 직접 두 당사자가 서로 교환을 희망하는 자료를 서신으로서 구체화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두 당사자가 협약하는 것이다. 협약이 이룩되면 당사자는 교환자료를 하둑하여 항공편 또는 선편으로 이를 발송한다. 상대방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송한다. 발송하여온 짐은 당사자가 직접 찾아 오는 것이다. 직접교환은 자료를 직접 발송하고 직접 찾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무료로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를 기록 관리하는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결점이 있는 반면에 직접 교환함으로써 많은 자료를 얻을 수있는 이점과 개인적인 흥미를 독구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직접 교환은 자료정보를 넓게

얻을수 없는 점이 가장 큰 결점중의 하나이다

(4) 간접 교환

간접교환이란 두말 할 것도 없이 교환센터를 통한 국제간의 자료교환을 의미한다. 교환센터가 하는 기능은 크게 말하여서는 자국내의 교환업무와 외국에서 교환조건으로 들어오는 자료를 분배해 주는 일을 한다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자국내의 교환업무라고 함은 국제교환에 참가코자 하는 기관에서 교환조건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외국에 발송하여 주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외국에서도 이와같은 절차를 밟아 보내온 자료를 해당 기관에 일일이 분배해주는 것을 분배 업무라고 한다.

이와같이 교환센터는 국제간의 교환업무를 중앙에서 통괄적으로 하여주는 기관으로서 때로는 하역(荷役)과 위락만을 맡아서 하여 주는 일도 있으며 때로는 중앙에서 정보(Information) 판을 제공해 주는 일만 할 때도 있다.

교환센터를 통하여 국제간의 자료를 교환함에 있어서는 직접 교환에 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결점이 있는 반면에

- ① 경비와 노력의 절감, ② 교환센터의 기능을 최고로 발휘함으로써 교환 도수를 증가
- ③ 유익적인 교환과 그 조정(調整)
- ④ 복본(複本)의 교환등 많은 이점(利点)이 있다

3. 양자(兩者) 교환협정과 다수자(多數者) 교환협정 (Bilateral Agreements and Multilateral Conventions)
출판물국제 교환협정에는 양자교환협정과 다수자교환협정의 두가지가 있다. 이 외에도 일반문화협정 (general cultural Agreement) 이 있다.

7. 양자교환협정 (Bilateral Agreements)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것은 과학협회 또는 일반단체와 도서관에

실제로 단순한 서신연락 만으로서 두 당사자간에 교환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프로 여기에는 다음에 설명할 다수국 자가 여에 할 수 있는 없고 다만 서신연락한 두 단체만이 이를 적용준수 할 수 있도록 교환하면 되는것이다. 예를 들면 1954년 8월 14일에 미국과 볼란서, 1951년 7월 13일과 30일에 미국과 영국, 1954년 1월 1일에 일본과 오스트라리아가 교환협정을 체결한 것과 같은 것이다.

(2) 다수자교환 협정 (Multilateral Convention)

다수자 교환협정이란 국제교환협정에 다수자가 서명 가입하여 가입한 다수자가 그 협정에 의해서 자국의 출판물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1886년 3월 18일자로 "베루기"의 수도 "브뤼셀"에서 체결한 출판물국제교환협정 (Brussels Convention)에비준한 국가는 1889년에 "베루카" "부락셀" "플루갈" "베루비아" "수위스" "미국" "우루파이" "알젠틴" "파라과이"를 위시하여 1892년에 "스페인" 1897년에 "이탈리" 1921년에 "체코" "프랑스" 1923년에 "루마니아" "도미니카공화국" 1924년에 "라트비아(Latvia)" "단지(Danzig)" 1926년에 "중국" 1928년에 "에지프트" 1948년에 "이란" 등 21개 국가이다. "브뤼셀협정" 이외에 1902년의 "멕시코협정" 등 수개가 있다.

현재 유네스코에서도 이와같은 국제협정안을 작성중에 있음은 이미 언급한바 있다. 현재 알고있는 것으론 판공서 간행물교환협정과 일반간행물교환협정 (유네스코에서 둘을 따로 따로 규정하고 있음) 공히 정문(全文) 23조(1條)로 되어있다. 지난 5월에서부터 6월에 걸쳐 "브뤼셀에서 유네스코 주최로 동협정(同協定)의 최종안을 완성하였는데 지금까지 최초로 동협정(同協定)의 최종안을

원회에 피착임으로 도착되는 대로 최종안의 원문을 번역 소개 하겠다.

(4) 일반문화협정 (General Cultural Agreements)

이것은 정부와 정부가 상호 출판물을 교환할것을 협약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출판물의 배부" "출판물 교환"의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이것은 1956년 유네스코 간행 출판물국제교환핸드북 (Handbook on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 에서는 "이 조항(條項)은 교환협약 (Exchange agreements)이라고 할수 없고, 주축상의 동의라기 보다는 오히려 출판물을 교환코자 하는 희망의 표현 또는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5) 개요 (概要)

차기 유네스코 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유네스코 협정과 양자 혹은 다수자교환협정에 의지하여 출판물을 교환하는 간에 일체의 교환은 그 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교환센터를 이용함이 유익하다는 것을 다음에 열거 한다.

1. 관공서간행물 (official publications) 을 교환하기 위하여서는 외국적 그것을 대표 자국의 것을 보내는 간에 불교환센터를 이용함이 가장 효과적이다.

2. 오늘날 교환조건으로 자료를 발송하는 일을 오직 교환센터가 할 일의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료의 발송 및 접수를 중앙에서 대행함으로써 개개의 기관이 직접 함에서 드는 하필비와 우편료를 절감할수있는 이점(利便)이 있다.

그와 반면에 중앙에서 함다면 다소 시간이 늦어 질다는 것 뿐이다.

- (3) 국새와 국외의 교환 정보의 권력을 교환센터가 해 줌으로써 교환의 양(量)과 도수(度數)를 늘릴 수 있다.
- (4) 교환센터의 조절에 의하여 지방에 있는 기관에서는 교환판계를 맺어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외 자료를 만족할 만치 많이 얻는 데에도 도와 줄수 있다.
- (5) 복본(Duplicates)을 교환하는데에 교환센터는 그 노력을 감소시켜 줄뿐만 아니라 자료의 획득, 정간물(定刊物)수집을 완전하게 할수 있는 큰 이점을 갖다 줄수 있다.

독서주간포어잇 포스타- 도안모집

음력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독서주간 포어잇 포어잇 포스타-도안을 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응모자격 : 제한이 없음
- 2. 주력숫매수 : 제한 없음
- 3. 제출 마감 : 11월 9, 20
- 4. 제출처 : 도립사서국
- 5. 채택된 작품에 대해서는 상품을 전정함